

[국제리뷰 06-4] AIDS와 양성평등

한국여성개발원 정혜선 연구원

올해는 에이즈 발견 25주년이다. 전 세계적으로 매일 만 4천명이 HIV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8천명이 에이즈로 목숨을 잃고 있다. 유엔은 에이즈 발견 25주년을 맞아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에이즈 고위급회의(High Level Meeting on AIDS)를 열어, 국제사회가 에이즈 퇴치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에이즈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근절하는데 힘을 모을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이 회의에서는 과거 에이즈 감염자의 대다수가 남성이었던 것에 반해, 지금은 여성이 전체 감염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참가국들은 "에이즈의 여성화(feminization of AIDS)"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에게 효과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무엇보다 여성이 스스로의 삶과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 양성평등을 이룩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증가하는 여성 에이즈 감염률

1981년 미국에서 에이즈가 처음 보고되었을 때, 에이즈는 남성 동성애자에게서만 발생하는 병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이후 이 질병이 성접촉을 통해서만 감염될 수 있는 병이 아니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고 병명은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AIDS: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으로, 에이즈를 유발하는 바이러스는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로 명명되었다.

80년대 중반부터는 에이즈 감염자의 국제연대 및 세계보건기구(WHO)의 에이즈 프로그램과 같은 에이즈 퇴치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시작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 UNAIDS는 1996년 유엔의 여러 기구들이 모여 발족한 에이즈공동프로그램(Joint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이다. UNAIDS가 작년 11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4천3십만 명이 HIV 바이러스에 감염된 채 살고 있다. 지금까지 약 2천5백만 명이 에이즈로 목숨을 잃었으며, 15-24세의 젊은 층이 현재 감염인구의 50%를 차지한다. 여성 역시 현재 전체 감염인구의 50%를 차지하는 집단이다. 초기에 에이즈가 주로 남성 동성애자에게서 발견되었다면, 이제는 여성의 감염률이 놀랄만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 여성은 신규 감염자의 60%를 차지하며, 15-24세의 젊은 여성 사이에서 이 수치는 약 75%까지 증가한다.

에이즈와 양성평등

여성은 남성보다 HIV에 감염되기 쉽다. 전체 HIV 감염의 75%는 성접촉이나 임신과 출산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게다가, 성접촉을 통한 감염은 여성의 신체적 특성으로 인하여 여성이 남성에게 전파하는 경우보다, 남성이 여성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2배로 높다. 양성평등하지 못한 문화는 여성의 감염률을 더 높이고 있다. 유엔여성발전기금(UNIFEM)에 따르면, 여성이 남편과의 성관계만 유지하는 경우에도, 혼외 관계에서 HIV에 감염된 남편을 통해 에이즈에 걸릴 수 있으며, 남편에게 콘돔의 사용을 요구할 수 있는 발언권이 없다는 점은 더더욱 여성을 취약하게 만든다.

지난 2001년 열린 유엔에이즈특별총회(UNGA Special Session on HIV/AIDS)는 경제, 사회, 문화적 요인이 여성의 에이즈 감염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행동을 촉구한 바 있다. 여성은 차별과 폭력으로 억압받고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성접촉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고, 남성에게 비해 에이즈 등에 대한 정보와 교육의 기회가 적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립을 얻기 힘들다. 또한 에이즈 감염률이 높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에이즈에 감염된 가족구성원을 돌보는 책임은 가족 내 여성에게 있는데 반하여, 정작 여성 본인이 감염되는 경우에는 치료조차 받기 힘든 경우가 많다.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초기에 HIV 감염을 발견하고 치료 받는 경우, 남성과 여성의 생존율은 똑같이 나타나지만, 여성은 남성보다 관련 정보나 진단 기회 등을 적게 갖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낮은 생존율을 보인다.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하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갖지 못하는 젊은 여성은 특히 에이즈 감염 위험성이 높은 집단이다. 실제로, 여성의 에이즈 발병률이 특히 높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여성이 에이즈가 무엇인지 알지 못할뿐더러 혼외 성관계를 통해 감염된 남편을 통해 바이러스에 접촉하게 되는 여성이 다수를 차지한다. 특히, 여아가 만 18세 이전에 장년 남성과 결혼을 하거나 돈을 벌기 위해 원조교제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아 감염 문제도 심각하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여성 에이즈 감염에 대한 논의가 주로 에이즈가 여성의 모성건강과 태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한계를 보여 왔다는 것이다. 여성 감염률의 증가는 미래사회 인구의 에이즈 감염률을 반영한다는 차원에서만 문제시되었고, 실제 감염된 여성들의 삶과 인권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또한 실제 모든 여성 감염자의 태아가 자동적으로 감염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에이즈 감염 여성이 비감염 여성과 동일한 임신과 육아의 권리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크다. 연구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이 에이즈에 감염된 경우, 임신과 출산의 과정과 모유수유를 통해 태아가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지만 치료 등을 통하여 태아의 감염률을 낮출 수 있다.

여성 에이즈 감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전략

90년대 말 아프리카에서 큰 성공을 거둔 ABC 캠페인은 절제, 정숙, 콘돔의 사용(Abstain, Be faithful, use Condoms when necessary)을 의미하는 에이즈 예방 캠페인이다. 실제 UNAIDS는 에이즈 발병률이 감소한 국가에서는 콘돔 사용의 증가와 최초 성경험 시기의 연기, 섹스 파트너 수의 감소 등 행동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캠페인은 혼전 및 혼외 성관계의 절제를 에이즈 예방의 핵심으로 내세우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에이즈 등 성접촉으로 전염되는 질병 예방에 있어 콘돔 사용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화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부부관계에서도 콘돔의 사용 등을 협의할 수 없는 여성의 입장에서 이 같은 캠페인은 실질적인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여성이 사용을 결정할 수 있는 여성용 콘돔을 널리 보급하거나 여성에게 에이즈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여성단체들은 강조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올해 열린 에이즈 고위급회의에서 여성에게 효과적인 정책 개발이 에이즈의 근본적이고 유일한 해결책임을 역설한 것이다.

앞서 보았듯이 에이즈는 성접촉, 임신 및 출산이나 보건의 다각적인 측면에서 전파되고, 여성과 같은 취약계층이 존재하는 사회문화적 빈틈을 통해 증폭된다. 국제기구들은 에이즈 퇴치를 위한 총체적인 접근을 위해서 에이즈 퇴치를 별개로 계획해서는 안 되며 성, 생식 및 보건, 양성평등 문화의 문제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개발된 것이 "Three Ones" 전략이다. 이전의 에이즈 대응책은 대체로 국제 기금과 NGO 등이 개발도상국에 기금을 주는 대가로 일방적인 지침을 강요하였다면, 이제는 국제 기금과 유엔, 개발도상국이 함께 (1) 관계 기구들이 합의한 HIV/AIDS 행동 계획 관련, (2) 에이즈 담당 국가기구, (3) 국내에서 합의된 감시 평가 체계를 각국에 설립하여 조화로운 HIV/AIDS 전략을 세워, 각국의 에이즈 대응 전략의 효과성을 제고하도록 한 것이다.

2004년 UNAIDS는 세계에이즈예방캠페인의 주제를 "여성과 에이즈"로 정하고 여성 감염자 증가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각성을 촉구하였으며, 시민사회와 여성 감염자, 유엔기구 등의 네트워크인 여성 에이즈 연대(Global Coalition on Women and AIDS)를 발족하였다. 여성 에이즈 연대는 올해 에이즈 발견 25주년을 맞아 주요 도시에서 여성 에이즈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행진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한국의 여성 에이즈 현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05년 한해 우리나라의 신규 에이즈 감염인구는 680명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11.5%가 증가한 수치이다. 1985년 처음으로 에이즈 발생이 관찰된 이래로 우리나라의 누적 감염자 수는 총 3,829명에 달했으며 이중 남성이 90%

이상을 차지한다. 감염경로를 살펴보면, 남성은 이성간 성접촉(56%)과 동성간 성접촉(42.4%)이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는 반면, 여성은 97.1%가 이성간 성접촉에 의해 HIV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남편을 통해 에이즈에 감염되는 여성이 국내 뉴스에서도 심심치 않게 보고되는 가운데, 이 같은 통계는 많은 여성이 별다른 위험 행동 없이도 HIV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가정에서 여성이 주체성과 성적 결정권을 갖지 못하는 가부장적인 문화를 바꾸는 것이 에이즈 발병률을 감소시키는 열쇠가 될 것이다. 국내에서는 에이즈를 여성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태 파악 및 전략 수립 과정에서 여성 취약집단에 접근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직까지 논의되지 않고 있다. 외국에서 여성 에이즈가 급증했던 경험을 거울삼아 여성 에이즈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2004년 성매매특별법 제정을 둘러싸고 일었던 논란 중의 하나는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면, 성매매 여성이 정기검진을 받지 않게 되기 때문에 성병과 에이즈가 창궐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성매매 금지주의를 표방하는 우리나라는 전염병예방법에서 성병 및 에이즈를 의무적으로 검진 받는 업태를 규정했는데, 암묵적으로 성매매 집결지와 유흥접객업소 등에서 일하는 여성을 성매매 여성으로 보고 이들을 관리하여 질병의 확산을 예방하고자 했던 취지를 읽을 수 있다. 관련 여성단체들은 현실에서 이들 여성은 폭력이나 동의하지 않는 성접촉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성병과 에이즈의 위험에도 매우 취약한 집단임을 강조한다. 이들 단체는 성을 사는 사람으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는 기제가 없는 현실에서, 성병과 에이즈의 매개체로 비하되는 이들이 사실은 감염취약자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고 있다.

에이즈의 여성화 그리고 에이즈를 극복하기 위하여

세계 각지에서는 에이즈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국제회의와 행사가 열리고 있다. 오는 8월에는 캐나다에서 Time to Deliver, 즉, 에이즈 퇴치라는 각국의 결의를 이행하고 전 세계를 에이즈로부터 구한다는 주제로 제16차 세계에이즈회의(International AIDS Conference)가 열린다. 사실 국제사회에서 에이즈의 심각성이 이처럼 활발하게 논의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에이즈는 그 심각성으로 인해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된지 오래일 뿐 아니라, 에이즈 퇴치는 유엔 새천년개발계획에도 포함되었다. 하지만 세계 감염인구의 70%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러시아, 중국 등지에서 신규 감염이 급증하고 있다. 주된 피해자가 개발도상국 국민이나 여성과 같은 취약계층이라는 속성으로 인해 목소리에 비해 행동으로 옮겨진 노력은 적은 것이 사실이다.

최근 프랑스 등 14개 국가는 에이즈 치료제 마련을 위해 국제선 항공료에 에이즈 항공세를 부과하는 안을 채택하였다. 에이즈 퇴치 및 예방을 위한 예산 확보와 의학기술 개발의 중요성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여성과 같은 취약집단에게 효과적인 정책과 프

로그랩을 개발하는 것 또한 급증하는 에이즈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정보와 공공 서비스에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낮은 여성이 에이즈 예방 프로그램과 보건 시설 및 정보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함과 동시에,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남녀 모두에게 효과적인 정책의 개발, 여성이 활용할 수 있는 에이즈 예방책에 대한 연구, 남성의 의식 및 행동 변화와 에이즈에 대한 대중의 의식 고양을 위한 캠페인 등을 통해 에이즈의 여성화에 대항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각국은 에이즈 예방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여성감염의 근본적 원인이 되는 남녀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 전반적인 여성의 주류화와 양성평등한 문화 건설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